

중국, 한중일 FTA의 초보적 효과분석

세계화가 날로 강화되는 동시에 지역경제 통합 추세도 점차 뚜렷해진다. 지역경제 통합은 인접 국가 또는 지역간에 공동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택한 방향으로서 그 핵심은 회원국간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많은 무역 기회를 창조하여, 상품, 자본, 기술, 서비스와 인력이 자유롭게 이동하게끔 하는 것이다. 세계화의 배경 하에 지역경제 통합 추세가 나타나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세계 경제발전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적으로 인접한 경제기구들이 동맹을 결성하여, 역내 이익최대화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무역액은 각자의 시장 규모(GDP)에 정비례하고, 그들간 거리 또는 교역비용(관세)에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경제규모가 큰 국가들은 모두 지역경제조직에 가입하였지만, 동아시아에 위치한 세 개의 국가, 즉 GDP가 세계 2위인 일본, 7위인 중국(홍콩, 마카오, 대만은 제외), 11위인 한국 등은 지역경제조직을 형성하지 못했다. 한중일 3국의 2003년도 GDP는 6억 3,400억 달러로 세계 전체의 17.4%를 차지한다. 3국이 위치한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와 무역성장이 빠른 지역이지만, 무역자유화 진행과정은 비교적 늦다. 이는 우리들이 지역경제협력을 발전시키는 면에서 낙후하고, 이에 대한 3국의 임무가 막중하고 길은 멀다는 것을 뜻한다.

1. 한중일 FTA 체결의 유리한 조건

1.1. 3국 경제의 중요성

3국의 경제는 모두 외향성 경제로서 무역은 각국 경제발전에서 아주 중요하다. 3국은 모두 WTO의 다자간 체제하에서 관세를 인하하고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 일본의 평균 관세는 2.9%, 한국은 7.9%, 중국은 9.8%이다. 중국의 명목관세가 일본과 한국보다 높지만 실제로 징수하는 관세는 아주 낮다. 평균 관세는 6.8%에 불과하다. 그것은 중국에서 가공무역수입, 외자기업의 설비수입, 기술개조 수입은 기본적으로 면세이기 때문이다.

1.2. 3국간 경제관계의 밀접성

1980년대 이래 3국간 경제 연계는 점차 밀접하였고, 무역에서의 의존비율도 상승하여 상호 중요한 무역파트너로 되었다.

표 1 중국의 10대 무역상대국

수출상대국					수입원				
국가	2003		2004년1-9월		국가	2003		2004년1-9월	
	억달러	점유율	억달러	점유율		억달러	점유율	억달러	점유율
미 국	924.7	21.1	885.1	21.3	일 본	741.5	18	697.9	16.9
홍 콩	762.9	17.4	702.0	16.9	유 럽	530.6	12.9	526.4	12.8
유 럽	721.5	16.5	753.8	18.1	대 만	493.6	12.0	474.4	11.5
일 본	594.2	13.6	520.0	12.5	동남아	473.3	11.5	455.0	11.0
동남아	309.3	7.1	299.5	7.2	한 국	431.3	10.4	456.3	11.1
한 국	201.0	4.6	193.0	4.6	미 국	338.6	8.2	337.2	8.2
대 만	90.0	2.1	93.9	2.3	홍 콩	111.2	2.7	84.8	2.1
호 주	62.6	1.4	61.4	1.5	러시아	97.3	2.4	92.6	2.2
러시아	60.3	1.4	58.7	1.4	호 주	73.0	1.8	83.1	2.0
캐나다	56.3	1.3	58.3	1.4	브라질	58.4	1.4	65.9	1.6

자료 : 중국 해관통계

중국의 통관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중국의 가장 큰 수입국이다. 2003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742억 달러로 중국 전체 수입액의 18%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중국의 제4대 수출시장으로 2003년 중국에서 일본에 수출한 액수는 594억 달러로 12.5%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무역 적자는 147억 달러였다. 중국 상무부 추계에 의하면, 2004년 중국과 일본의 수출입무역은 1,70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중국의 무역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6대 수출시장과 5대 수입국이다. 2003년 양자간 무역액은 632억 달러에 달하였다. 중국의 무역적자는 230억 달러였다. 2004년 1월~9월간 한중 무역은 전년의 전반 수준을 초과하여 649억 달러에 달하였다. 2004년에는 9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무역적자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중국은 일본과 한국의 무역에 있어서 흑자를 실현할 수 있는 래원지로서 수출시장이며 중국의 경제성장이 일본과 한국의 경제성장에 반드시 유리함을 설명한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한국은 모두 중요한 무역파트너이다. WTO에 의하면 2002년 중국은 일본의 3대 수출시장과 1대 수입시장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은 12.6%, 18.3%로서 WTO가 설립된 1995년 대비 대폭 성장하였다. 한국은 수출입 두 측면에서 모두 일본의 4대 무역 무역파트너이다. 2002년 일본이 한국에 286억 달러를 수출하고 155억 달러를 수입하였다. 일본은 무역흑자 131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아쉽게도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수치는 찾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수치로 보면 한중일 무역이 한국에 대한 중요성도 못지 않게 높을 것으로 본다.

표 2 일본의 주요 무역상대국

	상품수출 점유율(%)					상품수입 점유율(%)				
	미국	유럽	중국	한국	대만	중국	미국	유럽	한국	인도네시아
1995	27.5	15.9	7.5	7.0	6.5	10.7	22.6	14.5	5.1	4.2
2002	28.9	14.7	12.6	6.9	6.3	18.3	17.4	13.0	4.6	4.2

자료 : WTO

1.3. 3국의 지역적 인접성

1.4. 3국 경제의 보완성

3국은 자연자원, 노동력자원, 과학기술, 산업구조면에서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경쟁성보다 크다. 경제무역관계를 밀접하게 하여 지역 내에서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각자에게 모두 유리하다. 무역측면에서 볼 때 상호 보완성도 뚜렷하다. <표 3>은 각 제품의 무역경쟁지수(TCi)를 반영한다. $TCi = (Xi - Mi) / (Xi + Mi)$ 이다. Xi, Mi는 i국 제품의 수출과 수입액을 나타낸다. TCi는 한 i국의 순수출액이 제품 수출입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그 수치는 -1과 1 사이이다. 지수가 나타내듯이 3국의 우위 제품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성이 경쟁성보다 큼을 알 수 있다.

표 3 중일한 일부 제품에 대한 무역 경쟁지수, 2002년

	식품과 생가축	음료와 연초	비식용 원료	광물연 료 및 윤활유	동식물 유지	화학제품 및 화공제품	원료에 따라 분류한 제조품	기계와 운송설 비	잡다한 제조품	미분류 한기타 상품
중국	0.47	0.43	-0.68	-0.39	-0.89	-0.44	0.04	-0.04	0.67	-0.41
일본	-0.91	-0.85	-0.71	-0.96	-0.78	-0.13	0.21	0.50	-0.20	0.44
한국	-0.57	-0.33	-0.70	-0.66	-0.88	-0.01	0.17	0.30	-0.12	-0.29

자료: 程佳韞, 중일한 FTA 체결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요소, 「안후이(安徽)공업 대학 신문(사회과학편)」 2004.5, 35P.

표 4 중일한 FTA가 복리와 GDP에 대한 영향

	경제복리수익(억달러)	GDP성장(%)
중국	47-64	1.1-2.9
일본	67-74	0.1-0.5
한국	114-263	2.4-3.1

<표 4>는 중국 대외무역부에서 발표된 수치이다. 원문에서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FTA를 체결하면 각자의 복리가 증진됨을 설명할 수 있다. 필자는 시간과 수치에 따른 복리 증진상황을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2. 한중일 FTA의 가능한 모델

2.1. 모델

세계 지역경제통합은 다양한 모델을 선택하고 있다. 전형적인 모델은 유럽(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다.

EU는 공동시장을 조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단일시장, 상품, 인적, 서비스, 기술들이 지역 내에서 자동적으로 이동하도록 발전시켰으며, 단일화폐를 발행한 세계적으로 경제일체화 정도가 가장 높은 지역조직이다. 또한 경제뿐만 아니라, 현재는 정책외교 등 각 분야로 확대 발전한 동시에 헌법협정 건립을 시도하면서 연방제도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EU 회원국은 상호간 격차가 적고, 또한 40여년의 발전과정을 경험하였다. 중국, 일본, 한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차이가 존재하는 한 EU 모델을 사용할 수가 없다.

NAFTA는 발전수준이 서로 다른 3국이 체결한 FTA로서 지역 내에서는 관세와 기타 무역제한을 취소화 한 동시에, (1) 지역외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회원국들은 각자가 독립적인 관세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고, (2) 역내에서는 원산지표시를 실행한다. 지역내 또는 주로 지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라야만 자유무역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두가지 정책을 실시하여 발전수준이 다른 회원국들은 모두 혜택을 보게 되었다.

ASEAN 회원국들도 발전수준이 서로 다르다. 회원국들은 주로 “공동으로 효과적인 우대관세계획”을 실시하여 관세를 차츰 낮추도록 하였다. 기존의 6개 회원국들은 2000년에 85%에 달하는 공동우대관세를 0-5%로 인하하였고, 2001년에 관세인하 범위를 90%로 확대하였으며, 2002년에는 100%로 확대하였다. 동시에 신회원국에 대해서는 더 긴 이행기간을 부여하였다.

한중일은 NAFTA와 ASEAN의 경험으로 FTA를 체결할 수 있다. 관세를 차츰 인하하고, 비관세조치를 해소하며, 원산지표시를 실시하고, 지역 이외의 무역에 대해 각 회원국들이 독립적인 무역정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2.2. 원칙

- (1) 호혜평등, 협상 일치의 원칙
- (2) 점진적 발전, 안정적 발전의 원칙
- (3) 3국의 WIN · WIN 원칙

2.3. 일정

한중일 FTA 체결은 아직은 연구단계이다. 3국 정부는 아직도 한중일 FTA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표도 없는 실정이다.

가능한 시기를 고려하려면 WTO 다자간협상 시간표와 APEC 시간표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늦어도 APEC 자유무역협정이 건립되기 전에 중 일한 FTA를 건립하여야 한다. APEC 지도자들이 가상하였던 대로 2010년에 선진국 회원국, 2020년에 개발도상국들로 최종적으로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실현한다는 시간표가 순조롭게 실현된다면 3국은 반드시 이 기간 전에 FTA를 건립하여야 한다.

APEC을 중심으로 한 FTA가 체결된 이후에 한중일 FTA를 거론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게 된다. 때문에 2015년 이전에 한중일 FTA를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2005년부터 3~5년간 협상과 협의를 진행하고, 5~7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 점차 무역제제를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WTO 협상이 추진됨에 따라 3국은 긴박감을 느껴야 하며, FTA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2.4. 협력 추진

(1) 우선 3국에서 인접한 일부 지역간 협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여, 전반적인 협력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2) 부분적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하도록 한다. (중국과 동남아연합국의 ‘조기관세철폐조치’와 유사) 예를 들면, 통관, 물류, 은행, 보험과 운송 등 통일된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측면에서 우선적인 협력을 실행한다. 단기 상업업무(15일)를 목적으로 하는 인적 왕래에 대해 비자면제 등 혜택을 실행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일방적으로 일본에 15일 비자면제 편의를 실행하고 있다.

(3) 논쟁이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환경보호, 에너지 분야이다.

(4) 일본과 한국은 전반적인 측면에서 중국 시장의 경제적 지위를 인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5. 민감분야에 대한 무역자유화

각 회원국들은 민감품목 목록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무역협정을 체결하여 각국의 민감품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긴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여 무역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과 한국의 농산품과 방직품, 중국의 자동차와 강철 등이다. 일본과 한국에서 단기간 내에 쌀과 기타 민감 농산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일부 공업품(자동차, 강철)도 단기간에 완전 개방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각자 민감품목에 더욱 긴 이행기간을 부여하여 관세양도를 진행할 수 있지만 관세를 인하하지 않을 수는 없다.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일정표를 정해야 한다. 한 회원국에서 쌀 관세를 490% 수준에서 삭감하지 않고 유지하는 반면에, 다른 회원국에서는 이에 대한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이러한 모델의 자유무역협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적절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

(1) 영토와 역사문제가 발생하는 정치적인 마찰을 해소하여야 한다. 중일 또는 한일간에는 모두 영토, 해양 전문소속 경제구역과 역사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등 문제점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감정적 충돌과 정치외교적인 마찰을 초래하게 된다. FTA는 싸우는 정치적인 분위기에서 체결될 수 없다. 때문에 3국의 국민과 정치지도자들은 지혜롭게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적어도 이러한 문제가 양자간 협상에 영향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무역보호는 무역논쟁을 초래한다. 농업은 동아시아 3국에서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힘든 일부 분야중 하나이다. 과거 몇 년간 한한, 중일간에 농산물 무역분쟁이 발생하였었다. 만약 FTA를 체결하면 동아시아 농업은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는 긴급히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최근에 3국 공동연구팀이 3국의 1,000여개 기업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에서 발표하였다. 조사결과, 3국 기업가들은 FTA를 체결하는데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중국은 85.4%기업, 일본은 78.7%의 기업, 한국은 70.9%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3국간의 FTA 체결을 지지하였다. 또한 80%에 달하는 기업들이 3년내에 FTA 협상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3년 7월,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 청화대학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동북아지역은 점차 세계경제의 엔진으로 발전하고 있다. GDP는 세계의 20%를 차지한다. 10년 혹은 15년 지나면 30% 초과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북경 학생들은 기차표를 사서 평양, 서울, 부산을 거쳐 도쿄까지 여행을 할 수가 있다. 이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동북아 미래상이다.”

최근, 유럽은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점차 동방으로 확장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확대되고 있으며, 미주자유무역협정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인류문명 발상지중 하나인 동아시아는 여전히 홀어린 모래이다. 동북아 3국은 긴박과 위기의식으로 역사적 사명을 가져야 한다.

자료 : 세계농정연구원, 「동북아 농업협력가능성에 관한 국제심포지엄」 발표자료,
2004. 12. 8~10, 제주시
(唐忠 · 曾寅初 · 金洪云, 중국인민대학)